

# “숲속의 전남’ 통해 함께 나무 심고 가꿔요”

### 강진군, 주민 자발적 참여...생활권 녹색환경 조성 4000주 나무 식재...탄소 중립·미세먼지 저감 기대

강진군이 ‘숲속의 전남’ 실현을 위한 나무심기와 숲돌보미 활동을 통해 지역 녹색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21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군새마을회는 최근 숲속의전남협의회 등 주민들과 함께 주요 생활권과 유유지 일원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추진하고, 주민단체참여숲 조성지에서 숲돌보미 활동을 병행하며 건강한 산림환경 가꾸기에 힘을 쏟았다.

행사에는 새마을지도자와 협의회 회원 등 다수의 지역 주민이 참여해 모과나무, 자작나무, 체리나무, 활참나무 등 4000여 주의 나무를 식재하며 녹지 공간 확충에 동참했다. 참여자들은 나무 심기와 함께 관수, 비료주기, 풀베기 등 숲돌보미 활동도 함께 실시하며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특히 숲 돌보미 활동은 숲속의전남협

의회 등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민단체참여숲 등 생활권 도시숲과 정원을 대상으로 연 10회 이상 활동해 나감 계획으로 숲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산림 경관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강진군은 이번 활동을 계기로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나무 심고 가꾸기 문화 정착을 통해 ‘숲속의 전남’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감 계획이다. 또 생활권 주변 녹지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 흡수 기능을 높이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강진=이진득 기자 sa4332252@gwangnam.co.kr



강진군새마을회는 최근 숲속의전남협의회 등 주민들과 함께 주요 생활권과 유유지 일원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추진하고, 주민단체참여숲 조성지에서 숲돌보미 활동을 병행하며 건강한 산림환경 가꾸기에 힘을 쏟았다. 사진제공=강진군청

## 광주도시공사, 친환경 활동 ‘쓰담’ 캠페인 눈길

### 임직원 40명 참여... 상무지구 일대 쓰레기 줄고 환경정화 24일까지 자원순환 캠페인 병행...참여자 친환경 제품 증정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는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상무지구 일대에서 친환경 환경정화 활동인 ‘쓰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구는 녹색대전환 중, 탄소중립 실현으로 세상을 잇다’라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탄소줄임 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했다. ‘쓰담’은 버려진 쓰레기를 담는다는 의미와 기후위기로 상처받은 지구를 쓰다듬는다는 뜻을 동시에 지닌다. 행사에 참여한 공사 임직원 40명은 2개 조로 나뉘어 상무지구 일대 거리를 걸으며 생활 쓰레기를 직접 수거했다. 22명으로 구성된 A조는 공사 후문을 시작으로 광장 일대를 순회했고, 18명이 참여한 B조는 공사 정문에서 출발해 우체국 등 주요 상가 밀집 지역을 돌며 시민들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공사는 오는 24일까지 5일간 ‘폐전자·전기 자원순환 캠페인’을 병행한다. 컴퓨터, 모니터, 통신문자기, 스캐너, 휴대폰 등 전기를 사용하는 중소형 폐가전을 수거해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 행사다. 특히 지난 20일 점심시간에는 윤리감사실과 재난안전실 직원들이 직접 수거를

도왔으며, 공사는 캠페인 참여자에게 전 연 수세미와 행주 등 친환경 제품을 증정해 일상 속 자원순환 동참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 보호는 안 쓰는 플러그 뽑기나 쓰담 캠페인처럼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한다”며 “혼자가 아닌 시민 모두가 함께 실천할 때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만들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사회 탄소중립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도시공사는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상무지구 일대에서 친환경 환경정화 활동인 ‘쓰담’ 캠페인을 실시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는 최근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주관한 ‘열린마음상담센터 희망손짓 캠페인’에 참여해 지역 주민 대상 건강증진 활동을 실시했다.

## 건강협회 광주전남지부, 바른 건강관리 인식 전개

### 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건강캠페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는 최근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주관한 ‘열린마음상담센터 희망손짓 캠페인’에 참여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활동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올바른 건강관리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주민들이 자신의 스트레스 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됐다. 현장에서는 뇌파·맥파 검사를 통해 스트레스 수준과 신체 반응을 측정하고,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건강관리 필요성과 일상 속 실천 방법을 안내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다양한 건강증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광주도시철도-기술사회, 건설 안전·품질 강화

### 도시철도 2호선 기술협력...안전한 건설환경 조성 최선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21일 본부 8층 대회의실에서 한국기술사회 광주·전남지회와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기술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의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 안전, 품질 관리의 민관 협력(거버넌스)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건설현장 품질 확보와 재해 예방 점검·지원, 건설공사 안전·품질관리 교육, 재난·재해 발생 시

대응 지원과 기술 자문, 건설공사 신기술·공법 정보교류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문점환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전문기관과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21일 본부 8층 대회의실에서 한국기술사회 광주·전남지회와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기술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장성 ‘찾아가는 그림책 도서관’ 유아 독서 교육

### 11개 유치원 대상...현장 호응 속 순항

전남도교육청 장성도서관(관장 차계옥)은 최근 지역 유아들의 독서 흥미 유발과 창의적 표현력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그림책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사업은 ‘다같이 신나는 책 놀이!’를 주제로 관내 단·병설 유치원 11개원 12개 반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서관은 그림책 분야 전문가 강사를 각 유치원에 직접 파견해 어린이들의 연령과 독서 수준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유아기에 경험하는 즐거운 독서 활동은 평생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며 “앞으로도 유치원 및 지역사회와 긴밀히 연계하여 어린이들이 책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체계적인 독서 인문 교육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장성도서관은 ‘찾아가는 그림책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 ACC-나주병원, 직원 정신건강 증진 위해 맞손

### 문화전당, 국립나주병원과 직원 정신건강 증진 협약 체결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김상욱)과 국립나주병원(병원장 윤보현)은 21일 ACC 회의실에서 직원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직원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앞서 사전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 방안과 역할 분담 등 세부 사항을 논의했으며,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직원 정신건강 문제 예방 △직무스트레스 완화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 진료 연계 △마인드클리닉, 정신건강 강의, 힐링 프로그램 등 맞춤형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이번 협약은 문화·의료분야 책임운영기관 간 첫 협력 사례로,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한 협력 모델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상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이번 협약이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직원들이 보다 건강하고 활력 있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나주배박물관이 4월 토요일 화요일 프로그램으로 ‘작은 정원, pear 테라리움’을 운영한다. 사진은 나주배박물관이 지난 3월에 진행한 토요일 화요일 프로그램 모습. 사진제공=나주시청

## 나주배박물관 ‘가족과 함께 예쁜 정원 꾸며요’

### KB금융그룹 연계 ‘작은 정원, pear 테라리움’ 운영

나주배박물관이 오는 25일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체험형 문화프로그램 ‘작은 정원, pear 테라리움’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KB금융그룹과 연계한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 관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이 함께 작은 정원을 직접 꾸며보는 테라리움 체험으로 구성됐다. 창의력 향상과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기획됐으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행사는 25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총 3회차로 진행된다. △1차 오후 1시~2시 △2차 오후 2시 30분~3시 30분 △3차 오후 4시~5시로 나뉘며, 회차당 20명씩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대상은 2022년생 이상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으로, 어린이 단